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February 2026 Issue | Vol. 13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 아시아 내 ‘BBB’ 등급 국가 중 상대적으로 강한 성과 —피치(Fitch) — page 1-2
-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 기업 사건 처리 위한 간소화된 절차 규정 발표 — page 2
- Department of Agriculture, 농산물 저장시설 의무 등록 명령 — page 3
- 아시아 · 태평양 CEO 37%, 핵심 사업 외 분야로 사업 확장 계획 — page 4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26년 PEZA 승인액 3천억 폐소 전망 — page 5
- Board of Investments, 2026년 투자 승인 목표 1조 폐소 — page 5-6
- 해외 체류 필리핀인, 2025년 송금액 사상 최대 356억 달러 기록 — page 6-7

UPCOMING EVENT

- [March 23, 2026] KCCP 제31회 연례 정기 총회 — page 8

대외 부문과 관련해 피치는 필리핀이 여전히 탄탄한 완충 장치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외환보유액의 지급 능력 대비 커버리지도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규모 상품 무역 적자는 서비스 수출과 해외 송금으로 일부 상쇄되고 있는데, 이를 항목은 국제수지의 핵심적인 지지 요인으로 남아 있다.

또한 피치는 2024년 기준 상품 수출이 GDP의 약 12%에 불과해 단기적으로 글로벌 교역 구조 변화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필리핀의 상품 수출 가운데 16% 이상이 전자제품과 기계류를 중심으로 United States로 향하고 있어, 향후 관세 관련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물가 여건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다. 피치는 완만한 인플레이션과 둔화된 내수 수요를 고려할 때, 필리핀 중앙은행인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이 아시아의 여러 ‘BBB’ 등급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기준금리를 25bp(0.25%포인트)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피치는 필리핀의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약 55.4%로 ‘BBB’ 등급 중위값에 근접하지만, 2019년 이후 약 21%포인트 상승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Cont. page 2]

필리핀, 아시아 내 ‘BBB’ 등급 국가 중 상대적으로 강한 성과 —피치(Fitch)

February 16, 2026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은 제한적인 재정 여력과 거버넌스(지배구조) 관련 과제가 신용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중기 성장 전망과 탄탄한 대외 완충 장치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대형 ‘BBB’ 등급 국채 발행국 가운데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한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Fitch Ratings의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경제는 2026년에 5.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India에 이어 아시아 ‘BBB’ 등급 5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빠른 성장률이다.

피치는 필리핀이 1인당 소득 수준이 점진적으로 ‘BBB’ 등급 중위값에 수렴함에 따라, 향후 수년간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 중 하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패 스캔들과 연계된 정부 지출 감소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에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중기적으로 강하고 지속적인 GDP 성장을 전망과 견진한 정책 프레임워크가 결합돼 있다는 점을 반영해 필리핀의 국가신용등급 모델 점수에 한 노치를 추가했다”며, “이러한 정책 프레임워크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버넌스 점수가 시사하는 수준보다 더 강하다”고 밝혔다.

이번 비교 대상에는 올해 6.4% 성장이 예상되는 인도 외에도 Indonesia(4.8%), Malaysia (4.0%), Thailand(1.9%)가 포함됐다.

피치는 이를 5개국 모두 2026년 글로벌 성장 둔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시아 ‘BBB’ 등급 국가들의 성장률은 여전히 해당 등급 중위값인 2.4%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의 경우, 성장은 공공 인프라 지출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Fitch Ratings는 필리핀의 공공 인프라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4.3%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다. 보고서는 인프라 개발이 기업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개방 확대를 목표로 한 각종 개혁과 함께 필리핀의 성장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아시아 내 ‘BBB’ 등급 국가 중 상대적으로 강한 성과 —피치(Fitch)

[Cont. from page 1]

Fitch Ratings는 필리핀이 2016년 이후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을 약 3%포인트 끌어올린 점에서 동종 국가들과 차별화된다고 평가했다. 이는 같은 그룹의 대부분 국가들과는 다른 성과라고 덧붙였다.

다만 거버넌스는 여전히 핵심적인 제약 요인으로 지목됐다. 피치는 필리핀이 5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World Bank의 거버넌스 지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부패 통제와 정치적 안정성 부문에서 취약하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에 발생한 거버넌스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불안과 시위가 재정 지출 압박과 정책 운용상의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피치는 강한 중기 성장세와 견조한 대외 완충 장치가 여전히 필리핀의 투자등급 신용도를 지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고성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채 부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외환보유액의 실질적인 감소나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 및 장기화가 발생할 경우 신용도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6/02/16/2508212/phillippines-among-asias-stronger-bbb-performers-fitch>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 기업 사건 처리 위한 간소화된 절차 규정 발표

February 16, 2026 | Alexandria Grace C. Magno | BusinessWorld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은 산하 부서와 사무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정 및 준사법(adjudicative) 절차에 적용되는 개정 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효된 SEC 회람(Memorandum Circular) 제8호(2026년 시리즈)는 2016년 제정된 절차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개정 회사법(Revised Corporation Code)과 증권규제법(Securities Regulation Code) 등 관련 법률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행정 및 준사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 절차 규정은 과태료나 제재가 수반되는 위반 사건과 같은 행정 사건은 물론, 권리 분쟁을 포함한 준사법 사건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번 규정은 운영 부서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회사명 변경과 해산을 담당하는 회사등록·모니터링부(Company Registration and Monitoring Department)와 시장 조작 및 내부자 거래를 다루는 집행·투자자 보호부(Enforc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Department)는 물론, 지부 사무소(extension offices)와 특별심리위원회(Special Hearing Panels, SHPs)가 포함된다. 단, 특별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다.

회람에 따르면, 관련 부서에서 명시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한, 이후 제출되는 모든 소송 서류와 자료는 공식 SEC 이메일 또는 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자 채널을 통해서만 제출해야 한다.

전자 제출 서류는 전자증거규칙(Rules on Electronic Evidence)에 따라 유효한 디지털 서명을 포함해야 하며,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회람은 “전자 전송 날짜가 곧 제출 및 송달 날짜로 간주된다”고 명시했다.

새 규정 하에서는 청원(petitions), 답변(answers), 지시된 서류(directed pleadings)만 허용된다. 반면, 기각 신청(motions to dismiss, 단 관할권 또는 소멸시효 자유는 제외), 기한 연장, 심리 연기, 답변서(replies), 재반박서(rejoinders) 등은 금지되며 제출될 경우 삭제(expunged)된다.

회람은 또한, SEC 부서, 지역 사무소 또는 특별심리위원회(SHP)가 관련 법률(증권규제법, 개정 회사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건 심리 없이도 단독 또는 민원 접수 후 업무정지·중지 명령(Cease-and-Desist Orders, CDOs)을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회람에 따르면, “CDO는 발령 즉시 효력을 가지며, 해당 CDO를 발령한 운영 부서, 지부 사무소 또는 SHP가 별도의 명령으로 해제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해당 운영 부서, 지부 사무소 또는 SHP에 CDO 해제(Motion to Lift)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결정은 위원회 전원회의(Commission en banc)에 항소할 수 있다.

회람은 또한 “확인된(Motion to Lift) 신청서에 대한 결정에 대해 재심사(motion for reconsideration)는 허용되지 않으며, 해제 신청 거부 결정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 전원회의에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corporate/2026/02/16/730629/sec-issues-simplified-procedural-rules-for-corporate-cas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농산물 저장시설 의무 등록 명령

February 14, 2026 | Ted Cordero | GMA Integrated News

Department of Agriculture(DA)은 토요일, 농업경제사보타주방지법(Anti-Agricultural Economic Sabotage Act)에 따라 창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DA는 보도자료를 통해, “농산물 저장시설 등록 시스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Registry System for Agri Storage)”을 발행하며, 창고, 냉동·냉장 시설 및 기타 농산물 물류 허브의 의무 등록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농산물과 수산물 제품을 보관하는 모든 시설—직접 소유, 임대, 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시설 모두—는 DA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의무 등록 대상에는 쌀 창고, 양파 냉장·냉동 저장시설, 육류 냉동고, 곡물 사일로, 냉장 컨테이너 차량, 농업용 저장 탱크가 포함되며, 국내산과 수입 농산물 모두를 취급하는 시설이 해당된다.

Francisco Tiu Laurel Jr. 농업부 장관은 이번 등록 제도가 “밀수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핵심 도구”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이어 “등록을 통해 정부가 공급망 전반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농민을 혼란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재기, 불법 수입, 불공정 판행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DA는 이번 정책이 공화국법 12022호(농업경제사보타주방지법, Anti-Agricultural Economic Sabotage Act) 제6조에 실질적 힘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해당 조항은 농수산업 관련 기업이 최소 5년간 완전하고 정확하며 감사 가능한 기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시설 운영자가 저장 용량, 취급 품목, 재고 수준을 공개하고, 월별 운영 기록을 유지하며, 관련 무역 규제 기관을 통해 분기별 전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가이드라인에 명확한 위반 유형과 제재가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농업부에 따르면, 합법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나 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또한 이미 규제기관에 제출된 최신 운영 보고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비준(Prima facie) 증거로 간주되어, 집행 조치의 증명 기준이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DA는 디지털 기록 은폐나 조작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범죄 행위는 사이버범죄예방법(Cybercrime Prevention Act) 적용 대상이 되어 추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회람은 “적법 절차에 따라, 관련 무역 규제 기관이 면허, 등록, 인증을 정지, 취소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공공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예방적 정지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DA는 통합 디지털 등록 시스템이 추적 가능성을 강화하고, 식품 안전 관리 감독을 개선하며, 가격 조작과 인위적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는 이상 재고 축적을 감지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등록 제도가 면허나 인증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은 여전히 식물산업국, 축산국, 수산자원국, 국가육류검사서비스, 설탕관리청, 국가담배청 등 규제 기관의 독점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DA는 “사리사리(sari-sari) 상점, 재래시장 상인, 가정 기반 소규모 기업, 이동식 행상, 자산 300만 폐소 미만의 인증 바랑가이(barangay) 마이크로 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는 법의 사회정의 조항에 따라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규모 사업자에게는 분명한 신호가 전달된다. 이제 등록은 의무이며, 집행은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농산물 저장의 불투명성은 법적·상업적 책임이 된다”고 강조했다. —VDV, GMA Integrated News

아시아·태평양 CEO 37%, 핵심 사업 외 분야로 사업 확장 계획

February 16, 2026 | Alexandria Grace C. Magno | BusinessWorld



PwC의 제29회 글로벌 CEO 서베이(Global CEO Survey)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CEO의 37%가 향후 3년 내 기술, 헬스케어, 자산관리, 물류, 소매, 제조업 등 새로운 산업 분야로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Isla Lipana & Co./PwC Philippines의 회장이자 수석 파트너인 로데릭 다나오(Roderick Danao)는 글로벌 메가트렌드, 즉 기술 혁신, 기후 변화, 지정학적 분열, 제도에 대한 신뢰 하락 등이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성장 분야를 탐색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다나오 회장은 주말 성명을 통해 “소비자와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것과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 패턴은 명확하다.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지면서 새로운 성장 영역이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나오 회장은 이어 “산업 경계를 넘어 선제적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재창조하는 기업이 더 지속 가능하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높다.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는 확실성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전략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CEO들은 단기적 신뢰감 약화 속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향후 1년간 매출 성장에 대해 ‘매우’ 또는 ‘극도로’ 자신감을 갖는 CEO는 21%에 불과해, 2025년의 34%보다 낮고 글로벌 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59%는 글로벌 경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신뢰도 하락은 높아진 리스크에서 비롯된다. APAC 지역 CEO의 거의 4명 중 1명(39%)은 사이버 위협에 대해 매우 또는 극도로 취약하다고 느낀다고 보고했으며, 아시아·태평양은 이번 글로벌 조사에서 인플레이션, 거시경제 불안, 관세 등 다른 도전 과제보다 사이버 위협을 더 큰 문제로 꼽은 유일한 지역이었다.

한편, 2025년 9월 발표된 필리핀 CEO 서베이 2025에서는 필리핀 소재 CEO의 52%가 현 전략으로는 자사 기업이 10년 이상 경제적 생존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또한 CEO의 84%가 사이버 위협을 주요 사업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y Jade Roxas-Divinagracia PwC 필리핀 M&A·기업금융 담당 매니징 파트너는, 2025년 현지 합병·인수(M&A) 활동이 둔화된 이유로 CEO들이 장기적 변혁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단기적 압박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자들은 명확한 성장 경로가 있는 산업을 목표로 삼았다.

PwC 글로벌 CEO 서베이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CEO의 79%는 단기~중기(0~5년) 전략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신중함은 자본 계획에서도 나타난다. 향후 3년 내 대규모 인수를 고려하는 CEO는 28%에 불과해, 지난해 54%에서 감소했으며 글로벌 평균 41%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향후 12개월 동안 국제 투자를 포기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0%로, 지난해 44%보다 증가했다.

인공지능(AI) 관련해서는 아시아·태평양 CEO의 성과가 균일하지 않게 나타났다. 지난 12개월간 매출 증가를 경험한 CEO는 39%로 글로벌 평균 30%를 웃돌았으며, 비용 절감을 경험한 CEO는 26%, 매출과 비용 모두 개선한 경우는 15%였다. 약 절반의 CEO는 재무적 이익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PwC 필리핀의 AI 준비도 조사 2025(PwC Philippines AI Readiness Survey 2025)에 따르면, 응답 조직의 AI 성숙도는 전반적으로 ‘초기 단계(emerging stage)’에 속하며, 전략·로드맵, 기술·인프라, 데이터 자산, 거버넌스·프로세스, 팀·인재, 모델링·운영 등 6개 부문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2점이었다.

조사 결과는 “많은 필리핀 조직이 AI 도입을 시작했지만, 확대와 제도화=scaling & institutionalization)가 여전히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PwC 제29회 글로벌 CEO 서베이는 전 세계 4,454명의 CEO를 대상으로 했으며, 그 중 1,766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CEO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corporate/2026/02/16/730628/37-of-asia-pacific-ceos-plan-expansion-beyond-core-sectors/>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26년 PEZA 승인액 3천억 폐소 전망

February 10, 2026 | Ruelle Castro | Malaya Business Insight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DTI)은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 승인 대형 투자가 올해 3천억 폐소에 달할 것으로 자신감을 보였다. 이는 2025년 기록된 2,608억 9천만 폐소보다 약 15% 높은 수치다.

DTI에 따르면, PEZA는 2022년 이후 연평균 23% 성장을 기록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Cristina Roque 무역장관은 2026년 투자 성장은 제조업(60%), 경제구역 개발(25%), IT-BPM 서비스(15%)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장관은 필리핀의 주요 외국인 투자국으로 일본, 미국, 영국, 한국, 싱가포르, 중국, 대만을 꼽았다.

또한, Cristina Roque 장관은 필리핀이 2026년 상품·서비스 수출 목표를 1,160억~1,200억 달러로 설정했으며, 이는 필리핀 개발 계획(Philippine Development Plan)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전자제품, IT-BPM, 코코넛·바나나·파인애플 등 주요 식품 수출이 계속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규 수출 분야

Roque 장관은 정부가 신흥 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2025년 의류, 신발, 여행용품 분야가 강한 성장세를 보였고, 개인 위생·뷰티 제품은 필리핀이 COSMOPROF 2025에 참여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그녀는 또한 마르코스 행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적극 추진해, 필리핀 제품의 시장 접근성을 넓히는 최대 FTA 체결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Roque 장관은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MSME)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위원회(BOI) 프로젝트

장관은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s, BOI)가 올해 1조 폐소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도 산업은 광물 가공, 인프라(디지털 프로젝트 포함), 고부가가치 제조업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를 산업이 지난 3년간 승인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보다 개별 사업당 자본 비용이 낮다고 설명했다.

Roque 장관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특히 해상 풍력은 일반적으로 자본 비용이 매우 높다”며, “정부는 이전에 등록된 프로젝트가 상업 운영 단계까지 원활히 진행되도록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peza-approvals-to-hit-p300b-in-2026-dti/>

Board of Investments, 2026년 투자 승인 목표 1조 폐소

February 14, 2026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s, BOI)는 올해 1조 폐소 규모의 투자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Cristina Roque BOI 의장 겸 무역장관은 성명에서, 올해 BOI의 투자 승인 목표를 1조 폐소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목표는 지난해 BOI가 승인한 1조 5,600억 폐소보다 낮은 수준이다.

In a statement, BOI chair and Trade Secretary Cristina Roque said the agency has set an investment approvals target of P1 trillion for this year.

STAR / File

[Cont. page 6]

Board of Investments, 2026년 투자 승인 목표 1조 폐소

[Cont. from page 5]

“이들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RE) 프로젝트보다 개별 사업당 투자 비용이 낮기 때문에, 올해 BOI 등록 목표를 다소 낮게 설정했다”고 Roque 장관은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BOI 승인 투자 대부분을 차지했다.

Roque 장관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의 전략적 관점에서도, 이전에 등록된 프로젝트가 상업 운영 단계까지 완전히 이행되도록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BOI에 등록된 프로젝트는 재정·비재정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BOI 승인 투자는 목표 1조 7,500억 폐소에는 미치지 못했다.

2024년 기록적인 1조 6,200억 원 투자 등록 수준에도 못 미쳤지만, 지난해 BOI 승인 투자액은 2년 연속 1조 5천억 원을 돌파한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해 BOI를 포함한 투자증권 기관의 전체 수익 투자액은 1조 9,200억 폐소로, 2024년의 1조 9,600억 폐소보다 다소 낮았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6/02/15/2507990/boi-sets-p1-trillion-investment-approvals-target-2026>

해외 체류 필리핀인, 2025년 송금액 사상 최대 356억 달러 기록

February 16, 2026 | Katherine K. Chan | Business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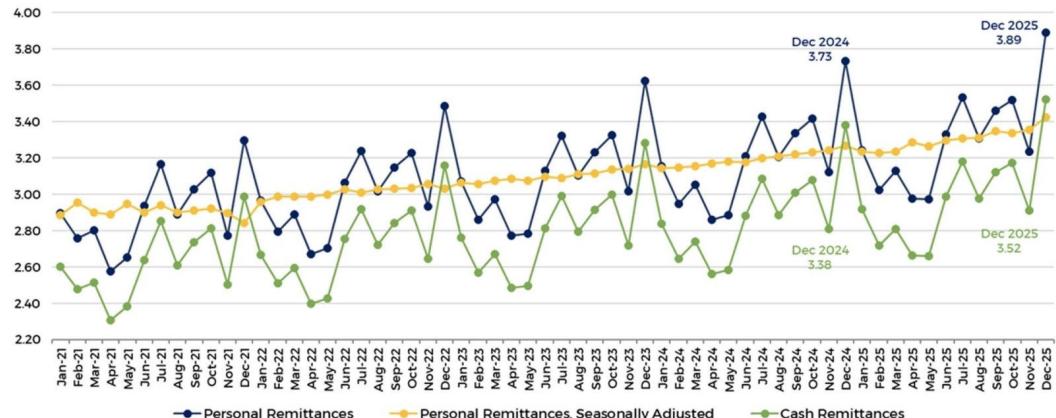
해외에 거주하는 필리핀인들의
송금액이 2025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송금이 필리핀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12월 현금 송금액은 35억 2천만 달러로 급증하며, 연간 송금 총액은 356억 3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2024년 344억 9천만 달러보다 3.3% 증가한 수치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회복세의 불균형 속에서도 견조한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꾸준한 성장은 국내 경제에 상당한 기여로 이어졌다.

연간 현금 송금액은 국내총생산(GDP)의 7.3%, 국민총소득(GNI)의 6.4%에 해당한다.

Figure 1
Personal and Cash Remittances
 in billion US dollars
 for periods indic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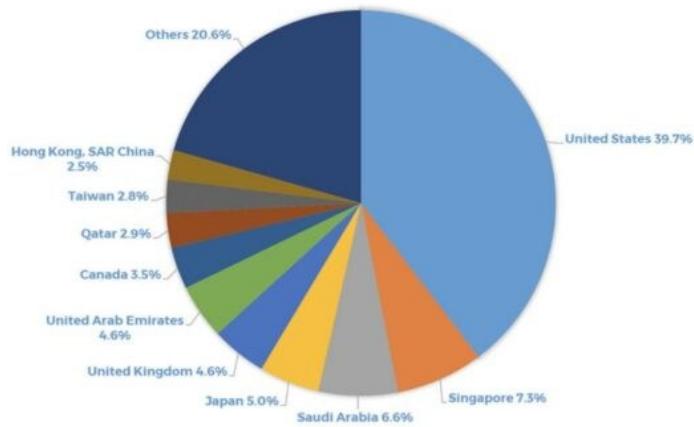
이 같은 송금 유입은 가계 소비를 지원하고, 외환 보유액을 강화하며, 변동성이 큰 글로벌 시장 속에서 외부 충격을 완충하는 중요한 안정장치 역할을 계속 수행했다.

2025년에도 미국이 현금 송금 최대 국가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 서비스, 기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필리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Cont. p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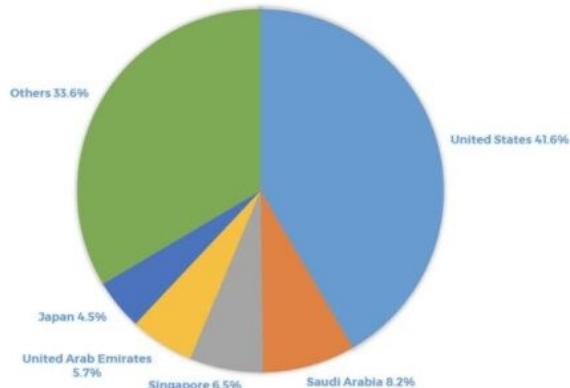
해외 체류 필리핀인, 2025년 송금액 사상 최대 356억 달러 기록

[Cont. from p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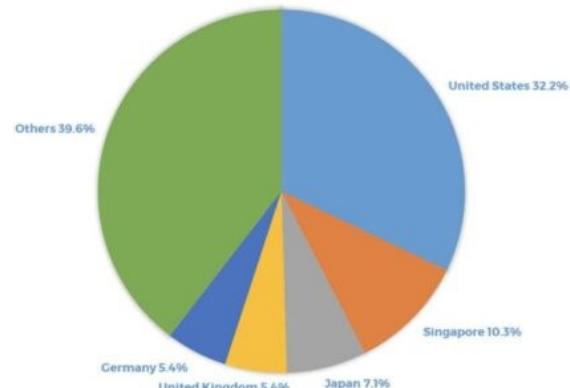
Figure 2
Cash Remittances
 country sources, as percent share to total*
 January-December 2025



Land-based Cash Remittances



Sea-based Cash Remittances



*Details may not add up to 100 percent due to rounding

싱가포르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뒤를 이으며, 일부 국가가 성장 둔화와 노동 조건 강화에 적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필리핀 노동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식 채널을 통한 현금 송금을 넘어, 전체 개인 송금(personal remittances)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월 한 달 동안 개인 송금은 38억 9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연간 총액은 396억 2천만 달러로 전년 383억 4천만 달러보다 3.3%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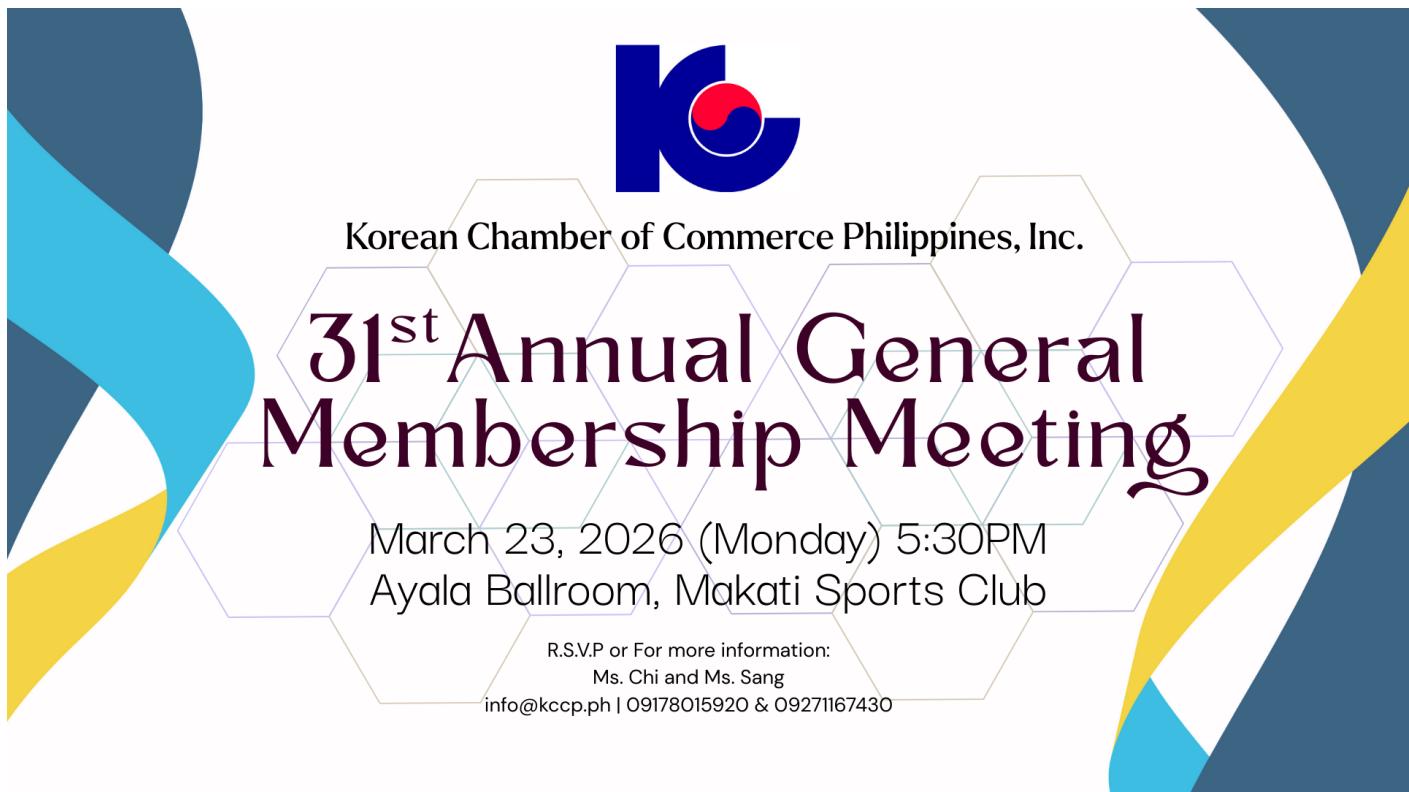
이 수치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한 송금과 현물 송금도 포함되어, 해외 필리핀인이 가족에게 보내는 지원 규모를 더 완전하게 보여준다.

경제학자들은 송금 증가의 견조함이 안정적인 해외 고용, 디지털 송금 플랫폼의 활용 확대, 해외 거주 필리핀인의 생활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족 지원을 지속하려는 강한 의지 등의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

2026년에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송금은 국내 수요를 유지하고 필리핀의 대외 위치를 안정시키는 핵심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filipino-lifeline-abroad-delivers-record-us35-6-billion-remittances-in-2025/>

[UPCOMING EVENT] KCCP 제31회 연례 정기 총회 | March 23, 2026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The advertisement features a vibrant, abstract landscape composed of various colored powders or sand, creating a textured, mountainous appearance. A large, semi-transparent yellow and pink rectangular frame is positioned in the center, containing the SGV logo and tagline.

SGV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Will you shape the future or be shaped by it?

With our spectrum of services, skills and ecosystems, SGV teams help create new value across sectors.
sgv.ph

© 2025 SyCip Gorres Valdez & Co. All Rights Reserved.

...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In everything we do, we nurture leaders and enable businesses for a better Philippines.
#SGVforABetterPhilippines